Morning Meeting Notes

2023-12-01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What's Inside

건설산업(OVERWEIGHT) 매매거래량은 정체되었으나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BUY/83,000) 그린소재 투자 확대. 암모니아 장기성장 기대
[매크로] 11월 금통위 - 7회 연속 만장일치 금리동결
[퀀트] KOSPI200, KOSDAQ150, KRX300 정기변경

New Issue

뉴욕증시, '물가지표 소화'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0.23%↓
뉴욕채권, 물가 둔화에도 채권금리 급등
국제유가, OPEC+ 감산 소식에도 국제유가 하락...WTI 2.9%↓

New Publication

[음식료산업] 2024년 연간전망: 꺼진 불을 다시 볼 때(2023-11-28)
[방위산업] 전쟁의 시대(2023-11-27)
[미국주식] 2024년 미국주식: 불안 속 축배를 들 때(2023-11-27)
[제약/바이오] 2024년 연간전망: 키트루다 유니버스(2023-11-24)
[AI산업] 2024 AI 산업 연간전망: 온디바이스 AI와 NPU 시장의 개화(2023-11-24)
[화장품] 2024년 연간전망: K-Beauty의 축복이 끝이 없네!(2023-11-22)
[금융] 2024년 금융업 전망: 손익과 주주환원 간의 바통터치(2023-11-21)
[건설] 2024년 연간전망: Adagio Sostenuto(2023-11-17)
[철강/비철금속] 2024년 연간전망: 제한적 회복(2023-11-16)
[자동차/모빌리티] 2024년 산업 전망: 그대들은 어떻게 '살'것인가(2023-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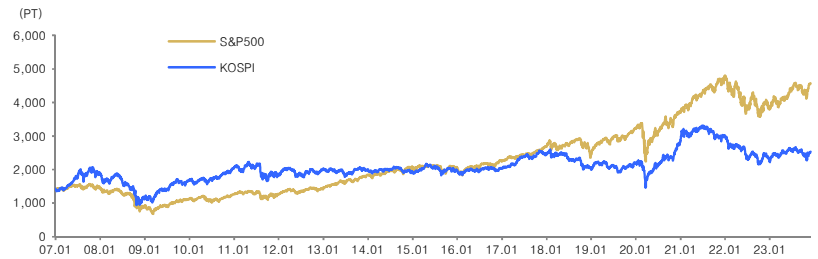
Rating, Target Price Changes

롯데정밀화학	BUY	100,000 원 >	BUY	83,000 원	(2023-12-01)
한올바이오파마	BUY	49,000 원 >	BUY	63,000 원	(2023-11-29)
CJ제일제당	BUY	400,000 원 >	BUY	440,000 원	(2023-11-28)
롯데웰푸드	BUY	140,000 원 >	BUY	170,000 원	(2023-11-28)
코리안리	BUY	11,000 원 >	BUY	10,000 원	(2023-11-28)
LIG넥스원	신규편입	▷	BUY	130,000 원	(2023-11-27)
한국항공우주	신규편입	▷	BUY	72,000 원	(2023-11-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규편입	▷	BUY	150,000 원	(2023-11-27)
한화시스템	신규편입	▷	BUY	19,000 원	(2023-11-27)
현대로템	신규편입	▷	BUY	37,000 원	(2023-11-27)
저스템	BUY	36,000 원 >	BUY	21,000 원	(2023-11-24)
삼성바이오로직스	BUY	1,150,000 원 >	BUY	1,000,000 원	(2023-11-24)
칩스앤미디어	신규편입	▷	BUY	38,000 원	(2023-11-24)
코스맥스	신규재편입	▷	BUY	180,000 원	(2023-11-22)

외국인 순매수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순매수	금액(백만)
SK하이닉스	107,068	삼성전자	176,869
금양	59,499	SK하이닉스	41,654
두산로보틱스	53,893	BGF리테일	33,001
HPSP	50,2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0,681
한미반도체	30,462	기아	30,381

외국인 순매도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순매도	금액(백만)
삼성전자	-62,863	TIGER 200	-21,487
POSCO홀딩스	-32,944	LG전자	-21,071
LG화학	-26,681	SK텔레콤	-15,111
포스코퓨처엠	-23,708	KODEX 200	-14,00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976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12,982

KOSPI, S&P 추이



국내시장 동향	종가	D-1(%)	D-20(%)
KOSPI	2,535.29	+0.61	+8.20
대형주	2,520.65	+0.56	+8.10
중형주	2,739.02	+0.75	+6.81
소형주	2,270.22	+0.55	+3.77
KOSDAQ	831.68	+1.12	+7.61

투자자별 매매동향 KOSPI	개인 (억원)	외국인 (억원)	기관 (억원)
순매수	-3,754	1,253	2,572
누적순매수(D-20)	-51,924	29,394	27,121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단위 :억 원)	198,155	183,088	146,836

업종별 지수	종가	D-1(%)	D-20(%)
건설	75.19	+0.94	+9.43
금융	374.03	+1.04	+7.29
운수장비	2,101.13	+0.21	+8.67
유통	355.95	+0.50	+6.05
음식료	3,623.83	-0.76	-2.28
의약품	12,726.46	-0.14	+4.53
전기전자	26,908.43	+0.65	+7.94
철강금속	5,929.58	+0.39	+9.34
화학	4,875.01	+0.53	+8.34
유틸리티	619.80	+1.32	+13.07
통신	382.77	+0.66	+3.38

해외시장 동향	종가	D-1(%)	D-20(%)
S&P500	4,567.80	+0.38	+5.79
NASDAQ	14,226.22	-0.23	+7.01
일본	33,486.89	+0.50	+4.81
중국	3,029.67	+0.26	+0.67
독일	16,215.43	+0.30	+7.08

주요 금리 동향	종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3.58	+2.90	-39.60
국고채 (10년)	3.70	+5.80	-46.90
은행채AAA (3년)	4.05	+2.80	-47.00
미국국채 (2년)	4.70	+5.34	-26.97
미국국채 (10년)	4.33	+6.83	-32.99

환율 동향	종가	D-1(%)	D-20(%)
원/달러	1,290.00	+0.03	-3.94
원/백 엔	870.22	-0.60	-2.52
원/위안	180.77	-0.06	-1.51
달러/유로	1.09	-0.80	+2.47
위안/달러	7.14	+0.08	-2.46
엔/달러	148.24	+0.64	-1.46
Dollar Index	103.54	+0.66	-2.45

상품시장 동향	종가	D-1(%)	D-20(%)
WTI (usd/barrel)	75.60	-2.90	-8.32
금 (usd/oz)	2,038.10	-0.44	+2.24
BDI	2,696.00	+12.76	+92.43
천연가스(NYMEX)	2.81	0.11	-19.15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ndustry Note
2023. 12. 01

건설

OVERWEIGHT

매매거래량은 정체되었으나 분위기는 개선되고 있다

Analyst 신동현
02-3787-2335
dhshin@hmsec.com

'23년 10월 주택 지표: 매매거래량 감소, 미분양 감소

- '23년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35,454세대(+90.9% YoY, -5.8% MoM)
- '23년 10월 전국 미분양 물량 58,299세대(+23.5% YoY, -2.5% MoM)
- '23년 10월 전국 준공후미분양 물량 10,224세대(+44.5% YoY, +7.5% MoM)

매매거래량은 다시 올해 2~3월 큰 폭으로 반등한 이후 3.5만~4만세대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은 8개월 연속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침체가 시작되었던 시기의 물량인 3만세대 이하에 비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주택 매매 수요는 반등 후 정체구간을 지나고 있다.

매매거래량: COFIX 금리 상승에 따라 증가세 정체

매매거래량이 주택가격을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로 이끌기 위해서는 1) 전체 거래량 중 매매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해야 하며, 2) 역사적 평균 매매거래량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23년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 기준, 전체 거래 중 매매거래 비중은 59.7%로 50% 이상이지만 역사적 평균치 51,638세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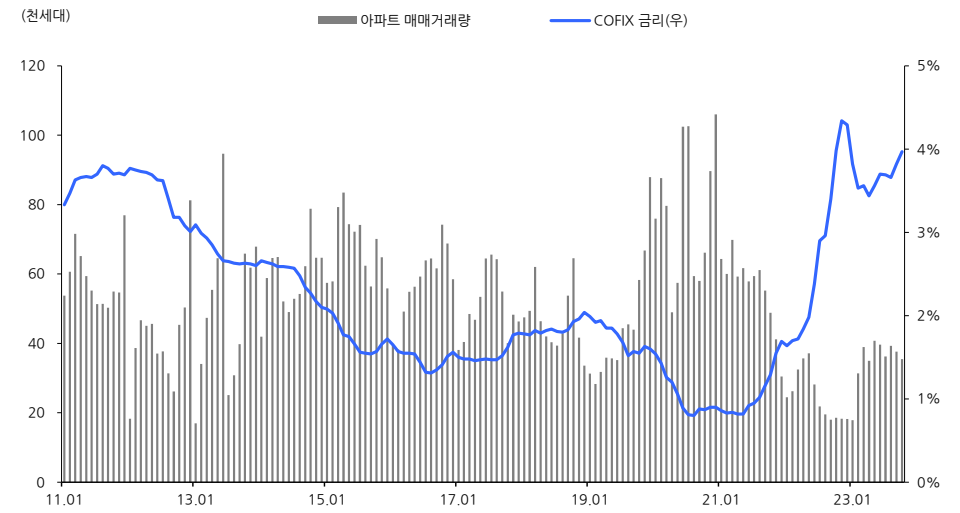
매매거래량 정체의 가장 큰 배경은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COFIX 금리는 작년 11월 4.34%를 기록한 뒤 올해 4월 3.44%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매매거래량과 주택가격은 모두 반등에 성공했으나 5월부터 다시 상승해 10월에는 3.97%까지 올라왔다. 결국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는 불이 붙지 못하고 다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폭의 수요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미분양: 분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감소

'23년 10월 분양 물량은 33,407세대(-6.0% YoY)를 기록,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분양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다는 점은 분양경기가 그 동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미분양은 꾸준히 전월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분양 물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미분양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그 동안과는 달리, 10월에는 분양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금 시점에서 판매하는 주택의 경우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만큼 건설사들은 확실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분양에 섣불리 나서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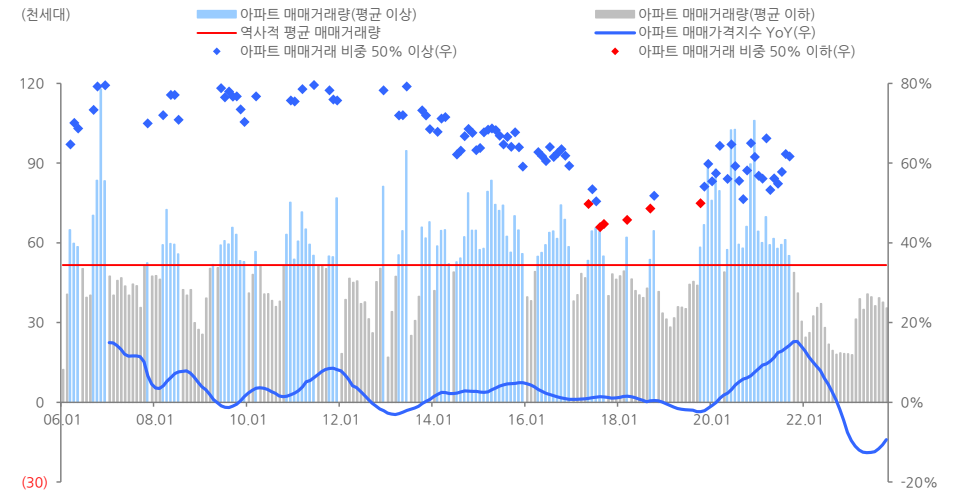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전방위적인 침체를 벗어났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며, 소득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 구매력은 다시 확대된 만큼 1H24 중 금리인하 시점이 가시화된다면 주택매매수요는 2H24부터 다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 COFIX 금리와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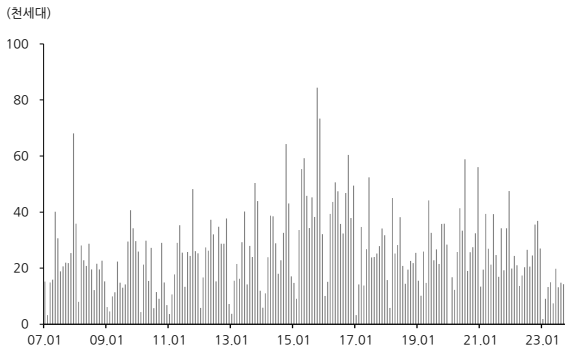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은행연합회, 현대차증권

<그림2> 아파트 가격 상승기 매매거래량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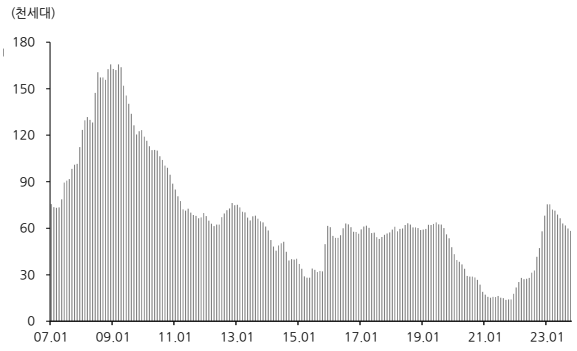
주1: 매매거래량 중 파란색은 역사적 평균치(51,914세대)를 상회한 시기, 회색은 역사적 평균치를 하회한 시기
주2: 점으로 표현된 매매거래 비중은 매매거래량이 역사적 평균치를 상회한 시기에 한해 표시함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현대차증권

<그림3> 분양 물량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현대차증권

<그림4> 미분양 물량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현대차증권

Company Note
2023. 12. 01

롯데정밀화학 (004000)

BUY
TP 83,000원

그린소재 투자 확대. 암모니아 장기성장 기대

Analyst 강동진
02-3787-2228 dongjin.kang@hm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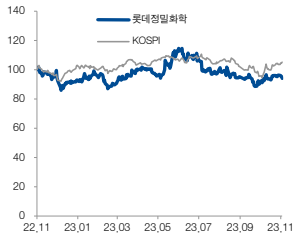
현재주가 (11/30)	57,800원
상승여력	43.6%
시가총액	1,491십억원
발행주식수	25,800천주
자본금/액면가	129십억원/5,000원
52주 최고가/최저가	70,400원/52,800원
일평균 거래대금 (60일)	4십억원
외국인지분율	21.01%
주요주주	롯데케미칼 외 8 인 43.51%

주가상승률	1M	3M	6M
절대주가(%)	1.6	-4.6	-2.9
상대주가(%p)	-7.4	-3.6	-0.9

* K-IFRS 연결 기준

(단위: 원)	EPS(23F)	EPS(24F)	T/P
Before	11,863	11,293	100,000
After	8,690	9,681	83,000
Consensus	9,830	10,217	82,400
Cons. 차이	-11.6%	-5.2%	0.7%

최근 12개월 주가수익률



자료: FnGuide, 현대차증권

투자포인트 및 결론

- 4Q23 실적은 염소계열 사업의 더딘 회복으로 3Q23수준의 실적 기록할 것
- 그린소재 사업은 높은 수익성 이어갈 전망. '24년부터 물량 성장. '25년 식의약 투자 확대 결정
- 여전히 연간 투자비는 EBITDA를 하회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배당 가능할 것
- 장기적으로는 가성소다 사업 해외 진출 및 암모니아 사업 역시 성장의 축이 될 것
- 최근 예상보다 부진한 염소계열 시황 반영하여 TP 83,000원으로 하향하나 투자의견은 유지

주요이슈 및 실적전망

- 예상보다 부진한 ECH, 가성소다 시황 지속. 다만, PVC, ECH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가성소다는 안정적인 흐름 이어갈 전망. 중장기 가성소다는 전구체향 수요 증가로 여타 석유화학 제품 수요 대비 높은 성장률 보여줄 것
- 동사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원가 요소인 전력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에 가성소다 생산 설비 증설 검토. 동남아는 니켈 제련 등으로 연간 가성소다 수요가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그린소재 사업 성장 지속. 2H24 헤셀로스 10KTPA 증설로 성장세 이어갈 전망
- '25년 식의약 capa 증설을 기존 3,000톤에서 6,000톤으로 확대 결정. 미국 IFF가 현재 1위이나, 글로벌 투자 마무리 시 동사가 1위에 올라설 것
-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발주가 20척을 상회.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사용량 증가 기대. 암모니아는 수소캐리어로서 다시 Cracking하여 수소 수요처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선박 벙커링 연료 및 혼소용으로 사용 가능. 동사는 아시아 최대 암모니아 유통업체로서 울산 인프라를 활용한 암모니아 벙커링 시장 진출 등 암모니아 관련 사업 성장 기대

주가전망 및 Valuation

- 단기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하나, 동사는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 및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 배당 등 장기 투자 매력 높다는 판단

요약 실적 및 Valuation

구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BITDA (십억원)	EPS (원)	증감율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1	1,780	245	585	365	22,692	194.5	3.3	0.9	4.8	30.4	3.1
2022	2,464	404	146	528	5,665	-75.0	10.0	0.6	1.4	6.5	6.2
2023F	1,820	183	224	322	8,690	53.4	6.8	0.6	2.2	9.5	3.6
2024F	1,833	193	250	339	9,681	11.4	6.1	0.6	1.5	9.9	3.9
2025F	1,898	214	277	364	10,738	10.9	5.5	0.5	0.9	10.1	4.3

*K-IFRS 연결 기준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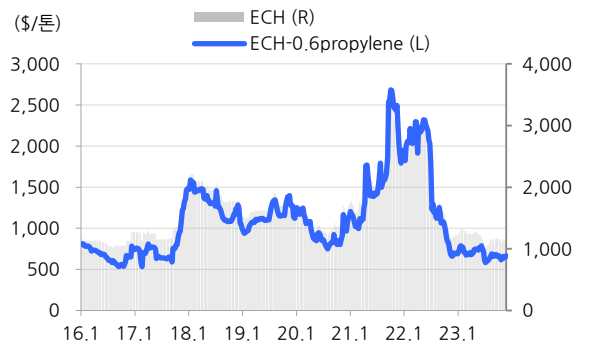
〈표1〉 실적 추정 변경

(단위: 십억원)

	2023F					2024F				
	변경 후	변경 전	변동율	Consensus	차이	변경 후	변경 전	변동율	Consensus	차이
매출액	1,819.8	1,817.2	0.1%	1,805.1	0.8%	1,833.3	1,782.8	2.8%	1,877.3	-2.3%
영업이익	182.9	213.8	-14.5%	191.8	-4.7%	192.5	258.8	-25.6%	228.0	-15.6%
영업이익률	10.0%	11.8%	-1.7%p	10.6%	-0.6%p	10.5%	14.5%	-4.0%p	12.1%	-1.6%p
지배지분순이익	224.2	306.1	-26.7%	253.6	-11.6%	249.8	291.4	-14.3%	263.6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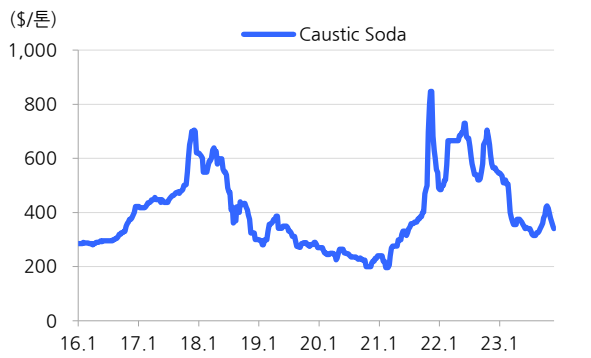
자료: 롯데정밀화학, Fnguide, 현대차증권

〈그림1〉 ECH Spread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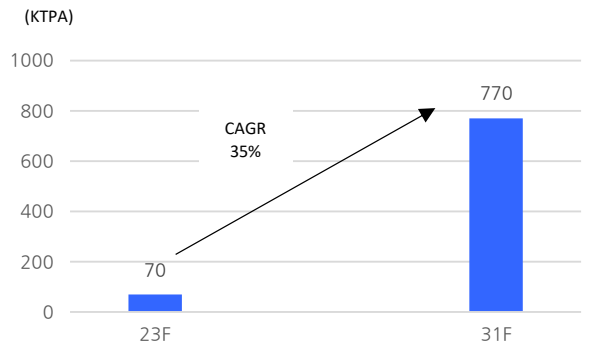
자료: Cischem, 현대차증권

〈그림2〉 가성소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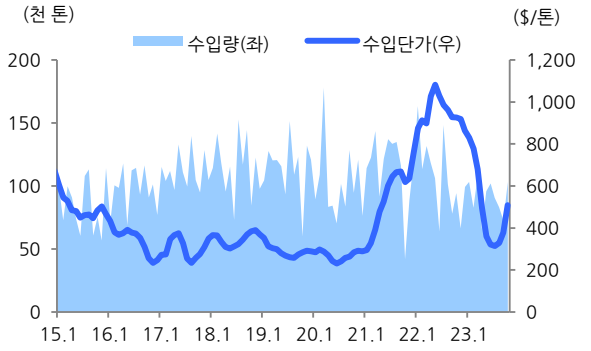
자료: Cischem, 현대차증권

〈그림3〉 국내 전구체향 가성소다 수요 전망



자료: 롯데정밀화학, 현대차증권
주: '23년은 롯데정밀화학, '31년은 현대차증권 추정

〈그림4〉 한국 암모니아 수입 물량 및 단가



자료: KITA, 현대차증권

〈표2〉 상세 실적 전망

(단위: 십억 원)	2022	2023F	2024F	1Q22	2Q22	3Q22	4Q22	1Q23	2Q23	3Q23	4Q23F
매출	**2,463.8**	**1,819.8**	**1,833.3**	**652.3**	**686.3**	**628.5**	**496.6**	**525.0**	**431.2**	**401.2**	**462.5**
(yoy, %)	38.4%	-26.1%	0.7%	89.7%	62.7%	27.7%	-5.0%	-19.5%	-37.2%	-36.2%	-6.9%
(qoq, %)	-			24.8%	5.2%	-8.4%	-21.0%	5.7%	-17.9%	-7.0%	15.3%
케미칼	1,968.3	1,305.0	1,328.0	540.7	557.7	488.0	381.9	392.8	294.2	280.9	337.1
그린소재	495.6	514.9	505.3	111.7	128.6	140.6	114.7	132.2	137.0	120.3	125.4
(yoy, %)											
케미칼	38.6%	-33.7%	1.8%	113.8%	71.2%	25.0%	-15.3%	-27.4%	-47.2%	-42.4%	-11.7%
그린소재	23.9%	3.9%	-1.9%	22.6%	34.1%	38.2%	3.0%	18.4%	6.5%	-14.4%	9.3%
영업이익	**404.3**	**182.9**	**192.5**	**110.3**	**129.5**	**120.4**	**44.1**	**42.0**	**69.1**	**35.1**	**36.6**
OPM	16.4%	10.0%	10.5%	16.9%	18.9%	19.2%	8.9%	8.0%	16.0%	8.8%	7.9%
(yoy, %)	65.4%	-54.8%	5.3%	210.7%	140.4%	71.5%	-48.1%	-61.9%	-46.6%	-70.8%	-17.0%
(qoq, %)	-	-		29.9%	17.4%	-7.0%	-63.4%	-4.6%	64.3%	-49.1%	4.1%
세전이익	**160.1**	**281.5**	**324.4**	**35.1**	**40.6**	**20.9**	**63.5**	**238.4**	**-3.5**	**-20.8**	**67.4**
(yoy, %)	-78.6%	75.8%	15.2%	-29.0%	-71.9%	-92.1%	-78.0%	579.7%	적전	적전	6.1%
(qoq, %)	-	-	-	-87.8%	15.8%	-48.6%	204.0%	275.4%	적전	적지	흑전
지배순이익	**146.2**	**224.2**	**249.8**	**29.6**	**29.2**	**22.5**	**64.9**	**185.3**	**-0.1**	**-12.9**	**51.9**
(yoy, %)	-75.0%	53.4%	11.4%	-27.0%	-74.4%	-89.0%	-71.3%	526.7%	적전	적전	-20.0%
(qoq, %)	-	-	-	-86.9%	-1.3%	-22.7%	187.6%	185.8%	적전	적지	흑전

자료 :롯데정밀화학, 현대차증권

〈표3〉 SOTP Valuation

	단위	2024F	EV/EBITDA Multiple	영업가치	비고
EBITDA	(십억 원)	339.3			
케미칼	(십억 원)	110.1	5.0	551	암모니아 트레이딩 사업 감안하여 보수적인 Multiple 부여 다만 향후 벙커링, 그린수소 사업 구체화 시 Multiple 확대 가능
그린소재	(십억 원)	229.2	9.4	2,150	Ashland EV/EBITDA multiple 적용
영업가치 계	(십억 원)			2,700	
순차입금(순현금)	(십억 원)	-982.5		-982.5	
비영업자산					
스카이레이크	(십억 원)		290.0	203.0	2020 년 2,900 억 투자금액 30% 할인 반영
롯데이네오스	(십억 원)		316.6	221.6	장부가 30% 할인
EV	(십억 원)			2,142.3	
발행주식수	(천 주)			25,800	
적정주가	(원)			83,034	TP: 83,000

자료 :롯데정밀화학, 현대차증권

(단위:십억원)

포괄손익계산서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1,780	2,464	1,820	1,833	1,898
증가율 (%)	40.8	38.4	-26.1	0.7	3.5
매출원가	1,431	1,938	1,509	1,511	1,536
매출원가율 (%)	80.4	78.7	82.9	82.4	80.9
매출총이익	349	525	311	323	362
매출이익률 (%)	19.6	21.3	17.1	17.6	19.1
증가율 (%)	49.1	50.4	-40.8	3.9	12.1
판매관리비	105	121	128	130	148
판관비율(%)	5.9	4.9	7.0	7.1	7.8
EBITDA	365	528	322	339	364
EBITDA 이익률 (%)	20.5	21.4	17.7	18.5	19.2
증가율 (%)	48.4	44.7	-39.0	5.3	7.4
영업이익	245	404	183	193	214
영업이익률 (%)	13.8	16.4	10.1	10.5	11.3
증가율 (%)	76.3	64.9	-54.7	5.5	10.9
영업외손익	271	-453	45	71	85
금융수익	344	104	58	71	85
금융비용	73	554	14	0	0
기타영업외손익	-0	-3	1	0	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232	209	54	61	61
세전계속사업이익	747	160	281	324	360
세전계속사업이익률	42.0	6.5	15.4	17.7	19.0
증가율 (%)	187.3	-78.6	75.6	15.3	11.1
법인세비용	161	14	57	75	83
계속사업이익	585	146	224	250	277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585	146	224	250	277
당기순이익률 (%)	32.9	5.9	12.3	13.6	14.6
증가율 (%)	194.0	-75.0	53.4	11.6	10.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585	146	224	250	277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0	0	0	0	0
기타포괄이익	2	8	0	0	0
총포괄이익	587	154	224	250	277

(단위:십억원)

재무상태표	2021	2022	2023F	2024F	2025F
유동자산	867	1,316	1,410	1,593	1,801
현금성자산	229	578	831	999	1,189
단기투자자산	0	0	0	0	0
매출채권	306	294	294	302	310
재고자산	245	286	260	267	275
기타유동자산	15	17	17	18	18
비유동자산	1,857	1,394	1,343	1,365	1,385
유형자산	766	799	762	778	791
무형자산	20	23	20	17	15
투자자산	1,037	482	458	467	476
기타비유동자산	34	90	103	103	103
기타금융업자산	0	0	0	0	0
자산총계	2,723	2,710	2,753	2,957	3,185
유동부채	309	397	306	314	323
단기차입금	1	1	1	1	1
매입채무	144	163	89	91	94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64	233	216	222	228
비유동부채	216	19	17	17	1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장기금융부채	95	5	4	4	4
기타비유동부채	121	14	13	13	14
기타금융업부채	0	0	0	0	0
부채총계	525	416	323	332	341
지배주주지분	2,199	2,294	2,429	2,626	2,844
자본금	129	129	129	129	129
자본잉여금	331	331	331	331	331
자본조정 등	-9	-9	-9	-9	-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21	-19	-19	-19	-19
이익잉여금	1,768	1,862	1,998	2,194	2,412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2,199	2,294	2,429	2,626	2,844

(단위:십억원)

현금흐름표	2021	2022	2023F	2024F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09	638	302	329	358
당기순이익	585	146	224	250	277
유형자산 상각비	118	121	136	144	147
무형자산 상각비	3	3	3	3	2
외환손익	1	0	-1	0	0
운전자본의 감소(증가)	-118	-27	-10	-7	-8
기타	-280	395	-50	-61	-6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4	-214	61	-108	-10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486	556	39	52	51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12	-144	-84	-160	-160
기타	564	-626	106	0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5	-75	-111	-53	-58
차입금의 증가(감소)	72	-90	-1	0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38	-59	-89	-53	-59
기타	-89	74	-21	0	1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220	349	253	168	190
기초현금	9	229	578	831	999
기말현금	229	578	831	999	1,189

(단위:원, 배, %)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2025F
EPS(당기순이익 기준)	22,692	5,665	8,690	9,681	10,738
EPS(지배순이익 기준)	22,692	5,665	8,690	9,681	10,738
BPS(자본총계 기준)	85,218	88,923	94,166	101,774	110,241
BPS(지배지분 기준)	85,218	88,923	94,166	101,774	110,241
DPS	2,300	3,500	2,100	2,300	2,500
P/E(당기순이익 기준)	3.3	10.0	6.8	6.1	5.5
P/E(지배순이익 기준)	3.3	10.0	6.8	6.1	5.5
P/B(자본총계 기준)	0.9	0.6	0.6	0.6	0.5
P/B(지배지분 기준)	0.9	0.6	0.6	0.6	0.5
EV/EBITDA(Reported)	4.8	1.4	2.2	1.5	0.9
배당수익률	3.1	6.2	3.6	3.9	4.3
성장성 (%)					
EPS(당기순이익 기준)	194.5	-75.0	53.4	11.4	10.9
EPS(지배순이익 기준)	194.5	-75.0	53.4	11.4	10.9
수익성 (%)					
ROE(당기순이익 기준)	30.4	6.5	9.5	9.9	10.1
ROE(지배순이익 기준)	30.4	6.5	9.5	9.9	10.1
ROA	25.5	5.4	8.2	8.7	9.0
안정성 (%)					
부채비율	23.9	18.1	13.3	12.6	12.0
순차입금비율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이자보상배율	680.4	707.6	280.0	940.3	1,027.1

** K-IFRS 연결 기준*

Macro Strategy
2023. 11. 30

오연구원의 채권전략 Snap-Shot

11월 금통위 – 7회 연속 만장일치 금리동결

Economist 오창섭
02) 3787-2385
cs.oh@hmsec.com

11월 금통위 – 7회 연속 만장일치 금리동결

11월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3.50% 수준에서 7회 연속 동결되었다. 또한 이번 금리동결 결정도 7회 연속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수정에서는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0%→2.10%로 0.1%p 하향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2.6%로 0.2%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경기둔화 압력 및 인플레이션 부담이 상충하는 환경에서 기준금리 변경을 고려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국내경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통화긴축 요인과 통화완화 요인이 대립하고 있다. 통화긴축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물가목표 대비 높은 물가상승률 상황 및 올해 2/4분기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통화완화 측면에서는 반도체 경기저점 징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수요 둔화에 따른 경기회복 불확실성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PF 불안 등 금융불안 가능성이 금리인하 요인으로 부각된다. 또한 사상 최대인 한국-미국 기준금리 역전 폭도 국내 통화정책을 제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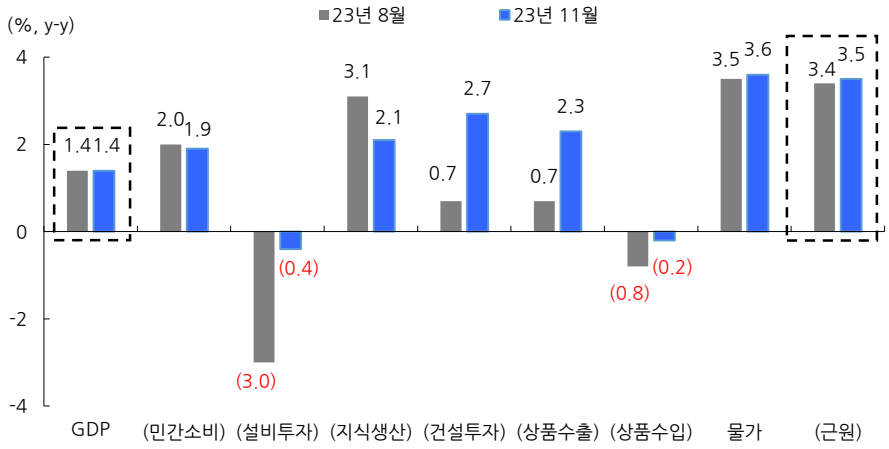
국내 통화정책 전망 – 유가 및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변수

내년 국내 통화정책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인하 기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향후 국제유가 향방 및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변수로 상존함에 따라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 내년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상 최대 폭을 기록하고 있는 한-미 금리역전 폭으로 인해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국내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상반기 완만한 하락 이후 하반기에 가파른 하락세를 전망한다. 그러나 이는 WTI 기준 현재 80달러 내외 유가를 가정한 상황이며, 향후 국제유가 시나리오에 따라 주요국 물가상승률 향방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내년 국제유가를 70달러 이하로 가정할 경우 상반기부터 가파른 물가 하락이 기대되며, 90달러 이상 국제유가에서는 상반기 물가상승률 반등 이후 하반기 완만한 인플레이션 둔화가 전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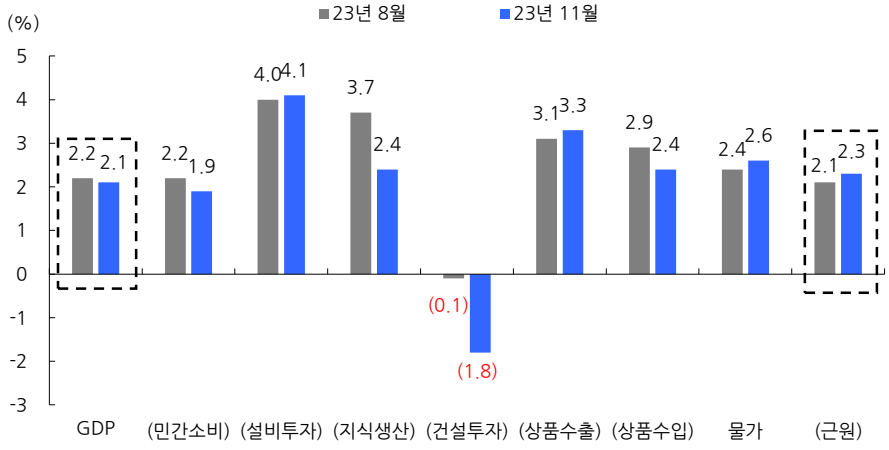
내년 주요국 금리인하 시점은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전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총력전에 따라 물가불안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인하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는 등 시장과 중앙은행 생각이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인하도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는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도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림 1> 한국은행 2023년 국내 경제전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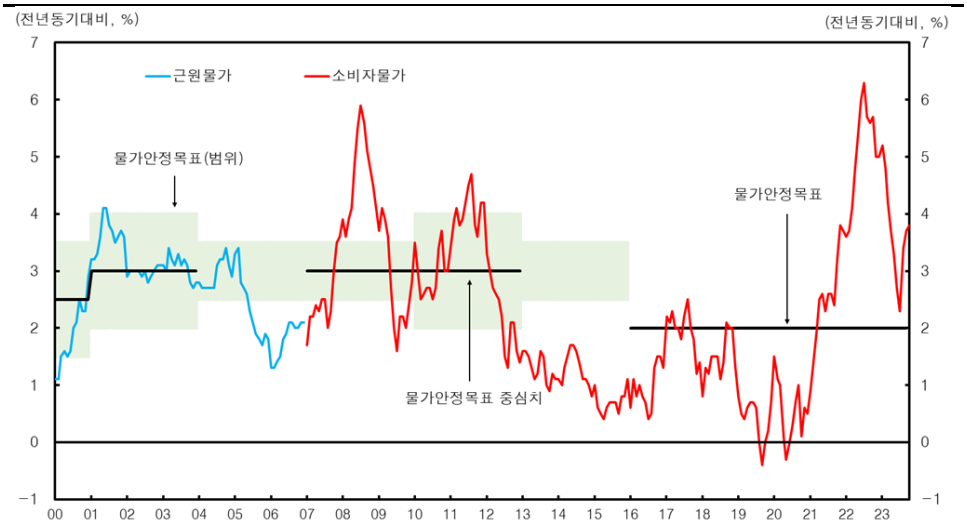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2> 한국은행 2024년 국내 경제전망 현황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그림 3> 한국은행 물가목표 vs. 관리대상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1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주요 Q & A〉

Q1. 향후 3개월내 추가 금리인상 주장 여부?

A. **6명 금통위원 중 4명은**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효과의 지속성 및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Q2. 지난 금통위에서 인하 가능성 주장 의원?

A. **해당 위원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의견을 철회**. 지난 회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함께 유가가 급등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높았는데, 현재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

Q3. 미국 등 주요국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 기대?

A. 현재 시장에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 대두. 그러나 **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판단

Q4. 물가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반등한 영향?

A. 지난달 물가상승율이 3.8%를 기록하며 통화정책 상황이 긴축인지 다시 한번 점검. 그러나 **10월 물가 상승은 대부분 농산물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단기적 현상**으로 판단. **향후 물가는 다시 2~3달 가량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인 상황

Q5. 긴축기조 표현에서 충분히 장기간 의미?

A. **기존 표현인 상당기간은 6개월 가량**을 의미.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고금리를 유지할지 달력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음. 충분히 장기간은 **물가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미

Q6. 미국보다 물가목표 수렴 시기가 빠를 것이란 예상?

A. 이번 한국은행 경제전망 등을 전제로 **국내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 연초** 예상. 반면 미국은 내후년 중후반 물가목표 근접 가능성. 한국이 미국보다 물가목표 수렴이 빠른 이유는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이 우리보다 1%p 이상 높기 때문

〈통화정책 결정문 및 금리결정 다수결〉

〈표 2〉 2023 년 11 월 금통위 vs. 2023 년 10 월 금통위

구분	2023 년 11 월 금융통화위원회	2023 년 10 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 및 국제 금융시장 판단	세계경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상당 폭 강세를 나타내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 판단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예상되고 내년은 2.1%로 높아지겠으나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낮은 실업률과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인플레이션 판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10 월중 3.8%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2%로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수요압력 약화,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8 월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내년 상반기중 3% 내외를 나타내겠으며, 연간으로는 금년 3.6%, 내년 2.6%로 전망된다(8 월 전망치 3.5% 및 2.4%).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으며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은 각각 3.5% 및 2.3%로 예상된다(8 월 전망치 3.4% 및 2.1%).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9 월중 상승률이 3.7%로 전월보다 높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9 월중 3.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물가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파급영향 지속 등으로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시장 동향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었다.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금융·외환시장은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다.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금리결정 다수결	**전원일치 금리동결**	**전원일치 금리동결**

주: 밑줄 및 음영은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중요한 부분 표시
자료: 한국은행, 현대차증권

Inside Quant/Global ETF

KOSPI200, KOSDAQ150, KRX300 정기변경

Analyst 이창환
02-3787-2278
ch.lee@hmsec.com

RA 이진청
02-3787-2191
jincheong.lee@hmsec.com

- KOSPI 200, KOSDAQ 150, KRX 300 지수의 정기변경 대상종목을 발표. 정기변경일 12월 15일(금), 실질적인 리밸런싱은 선물·옵션 만기일인 12월 14일(목) 장마감 동시호가로 이뤄질 예정
- KOSPI 200(편입 7, 제외 7): HD현대일렉트릭, TCC스틸, 덴티움, KG모빌리티, 삼아알미늄, 영원무역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편입. HDC현대산업개발, 보령, 현대홈쇼핑, 한섬, 지누스, 쿠쿠홈시스 등 제외
- KOSDAQ 150(편입 17, 제외 17): 루닛, 큐렉소, 셀바스AI, 엠로, 아이센스 등 편입. 셀트리온헬스케어, 위지윅스튜디오, 휴마시스, 아미코젠, 다날 등 제외
- KRX 300(편입 31, 제외 33): 이수페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루닛, 하나마이크론, TCC스틸 등 편입, 신라젠, 효성, 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 CJ CGV 등 제외

KOSPI 200, KOSDAQ 150, KRX 300 12월 정기변경 대상종목 발표

한국거래소는 KOSPI 200, KOSDAQ 150, KRX 300 지수의 12월 정기변경 대상종목을 발표했다. 정기변경일은 12월 15일(금)이고, 실질적인 리밸런싱은 선물·옵션 만기일인 12월 14일 장마감 동시호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KOSPI 200(편입 7, 제외 7), KOSDAQ 150(편입 17, 제외 17), KRX 300(편입 31, 제외 33)의 정기변경에 따른 수급효과를 추정해 제시했다. (ETF 기준) 한편, 영풍제지(A006740), 파두(A440110), 신성델타테크(A065350)은 주가지수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번 정기변경에서 미편입됐다.

〈표1〉 KOSPI 200 정기변경

구분	코드	종목명	업종(GICS)	유동비율	유동시가총액	KOSPI 200 자금유입효과(ETF)			
						예상비중	자금 유출입(A)	거래대금(B)	A/B
				(Wisefn)	(Wisefn)		ETF 17.2 조원	20 일 평균	
				(%)	(십억원)	(%)	(십억원)	(십억원)	(일)
신규편입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산업재	55.0	1,709.0	0.160	27.58	26.6	1.04
	A002710	TCC스틸	소재	67.0	946.7	0.089	15.28	19.0	0.81
	A145720	덴티움	헬스케어	59.0	817.6	0.077	13.20	9.6	1.37
	A003620	KG모빌리티	자유소비재	42.0	633.7	0.059	10.23	2.6	3.93
	A006110	삼아알미늄	소재	34.0	601.7	0.056	9.71	9.0	1.07
	A009970	영원무역홀딩스	자유소비재	39.0	413.2	0.039	6.67	1.3	5.29
	A001430	세아베스틸지주	소재	38.0	342.7	0.032	5.53	10.2	0.54
제외종목	A294870	HDC현대산업개발	산업재	55.0	545.6	0.051	-8.83	6.8	1.30
	A003850	보령	헬스케어	43.0	286.8	0.027	-4.64	2.9	1.58
	A057050	현대홈쇼핑	자유소비재	55.0	286.4	0.027	-4.64	0.6	7.60
	A020000	한섬	자유소비재	55.0	259.4	0.024	-4.20	1.2	3.39
	A013890	지누스	산업재	54.0	163.3	0.015	-2.64	3.2	0.82
	A284740	쿠쿠홈시스	자유소비재	30.0	150.1	0.014	-2.43	0.9	2.79
	A003240	태광산업	소재	22.0	145.5	0.014	-2.36	0.3	7.14

자료: 한국거래소, Wisefn, 현대차증권

〈표2〉 KOSDAQ 150 정기변경

구분	코드	종목명	업종(GICS)	유동비율	유동시가총액	KOSDAQ 150 자금유입효과(ETF)			
						예상비중	자금 유출입(A)	거래대금(B)	A/B
				(Wisefn)	(Wisefn)		ETF 1.85 조원	20 일 평균	
				(%)	(십억원)	(%)	(십억원)	(십억원)	(일)
신규편입	A328130	루닛	헬스케어	76.0	1,026.9	0.841	15.58	94.2	0.165
	A060280	큐렉소	자유소비재	70.0	500.0	0.410	7.58	19.2	0.394
	A108860	셀바스AI	헬스케어	89.0	495.9	0.406	7.52	16.5	0.455
	A058970	엠로	정보기술	61.0	493.1	0.404	7.48	13.5	0.556
	A099190	아이센스	헬스케어	75.0	476.8	0.391	7.23	8.3	0.875
	A058610	에스피지	정보기술	62.0	462.7	0.379	7.02	28.8	0.244
	A336570	원텍	헬스케어	48.0	436.8	0.358	6.62	18.4	0.360
	A310210	보로노이	헬스케어	57.0	408.7	0.335	6.20	7.2	0.865
	A299030	하나기술	정보기술	70.0	407.3	0.334	6.18	12.1	0.509
	A194480	데브시스터즈	커뮤니케이션	66.0	387.2	0.317	5.87	6.0	0.974
	A418550	제이오	산업재	43.0	363.8	0.298	5.52	7.8	0.707
	A095660	네오위즈	커뮤니케이션	55.0	319.3	0.262	4.84	11.0	0.441
	A053610	프로텍	정보기술	52.0	296.9	0.243	4.50	10.8	0.417
	A114190	강원에너지	산업재	53.0	255.3	0.209	3.87	3.9	0.988
	A118990	모트렉스	자유소비재	61.0	245.7	0.201	3.73	3.2	1.172
	A204270	제이앤티씨	정보기술	27.0	224.3	0.184	3.40	7.0	0.484
	A360070	탑머티리얼	정보기술	38.0	219.7	0.180	3.33	7.6	0.440
제외종목	A091990	셀트리온헬스케어	헬스케어	58.0	6,801.3	5.470	-101.27	41.3	2.454
	A299900	위지윅스튜디오	커뮤니케이션	52.0	271.3	0.218	-4.04	7.2	0.560
	A205470	휴마시스	헬스케어	85.0	227.1	0.183	-3.38	10.0	0.340
	A092040	아미코젠	헬스케어	84.0	215.7	0.173	-3.21	4.8	0.664
	A064260	다날	정보기술	79.0	206.2	0.166	-3.07	9.3	0.329
	A084990	헬릭스미스	헬스케어	91.0	194.2	0.156	-2.89	1.4	2.065
	A104830	원익머트리얼즈	소재	55.0	185.8	0.149	-2.77	1.2	2.250
	A060150	인선이엔티	산업재	52.0	177.0	0.142	-2.64	0.9	2.995
	A038540	상상인	금융/부동산	67.0	156.3	0.126	-2.33	0.4	6.122
	A294570	쿠콘	정보기술	67.0	136.5	0.110	-2.03	0.6	3.630
	A029960	코엔텍	산업재	38.0	134.5	0.108	-2.00	0.5	3.709
	A030530	원익홀딩스	정보기술	51.0	131.4	0.106	-1.96	0.6	3.372
	A235980	메드팩토	헬스케어	73.0	124.6	0.100	-1.86	2.3	0.803
	A038500	삼표시멘트	산업재	35.0	119.7	0.096	-1.78	0.3	5.402
	A027360	아주IB투자	금융/부동산	37.0	95.7	0.077	-1.42	0.3	4.913
	A104480	티케이케미칼	소재	52.0	82.7	0.066	-1.23	0.5	2.512
	A003100	선광	산업재	39.0	45.1	0.036	-0.67	0.4	1.678

자료: 한국거래소, Wisefn, 현대차증권

<표3> KRX 300 정기변경(편입종목)

구분	코드	종목명	업종(GICS)	유동비율	유동시가총액	KRX 300 자금유입효과(ETF)			
						예상비중	자금유출입(A)	거래대금(B)	A/B
				(Wisefn)	(Wisefn)		ETF 0.11 조원	20 일 평균	
				(%)	(십억원)	(%)	(십억원)	(십억원)	(일)
신규편입	A007660	이수페타시스	정보기술	74.0	1,394.7	0.119	0.12	81.8	0.002
	A036930	주성엔지니어링	정보기술	69.0	1,140.3	0.097	0.10	63.4	0.002
	A328130	루닛	헬스케어	76.0	1,026.9	0.087	0.09	94.2	0.001
	A067310	하나마이크론	정보기술	73.0	1,011.0	0.086	0.09	116.5	0.001
	A002710	TCC스틸	소재	67.0	946.7	0.080	0.08	19.0	0.004
	A185750	종근당	헬스케어	58.0	903.2	0.077	0.08	60.3	0.001
	A095340	ISC	정보기술	48.0	854.7	0.073	0.08	28.8	0.003
	A140410	메지온	필수소비재	72.0	786.1	0.067	0.07	4.9	0.014
	A003620	KG모빌리티	자유소비재	42.0	633.7	0.054	0.06	2.6	0.022
	A287410	제이시스메디칼	헬스케어	70.0	603.8	0.051	0.05	8.6	0.006
	A006110	삼아알미늄	소재	34.0	601.7	0.051	0.05	9.0	0.006
	A084370	유진테크	정보기술	61.0	599.7	0.051	0.05	10.4	0.005
	A290650	엘앤씨바이오	헬스케어	69.0	527.5	0.045	0.05	4.5	0.010
	A281740	레이크머티리얼즈	소재	57.0	503.2	0.043	0.04	14.4	0.003
	A058970	엠로	정보기술	61.0	493.1	0.042	0.04	13.5	0.003
	A009520	포스코엠텍	소재	50.0	492.4	0.042	0.04	23.9	0.002
	A348210	넥스틴	정보기술	69.0	478.4	0.041	0.04	6.0	0.007
	A192650	드림텍	정보기술	60.0	472.8	0.040	0.04	6.8	0.006
	A058610	에스피지	정보기술	62.0	462.7	0.039	0.04	28.8	0.001
	A336570	원텍	헬스케어	48.0	436.8	0.037	0.04	18.4	0.002
	A015750	성우하이텍	자유소비재	56.0	410.4	0.035	0.04	12.7	0.003
	A310210	보로노이	헬스케어	57.0	408.7	0.035	0.04	7.2	0.005
	A299030	하나기술	정보기술	70.0	407.3	0.035	0.04	12.1	0.003
	A001060	JW중외제약	헬스케어	56.0	388.7	0.033	0.03	8.0	0.004
	A000240	한국앤컴퍼니	자유소비재	28.0	376.9	0.032	0.03	4.6	0.007
	A372170	윤성에프앤씨	정보기술	42.0	364.9	0.031	0.03	9.8	0.003
	A418550	제이오	산업재	43.0	363.8	0.031	0.03	7.8	0.004
	A006120	SK디스커버리	에너지	47.0	359.7	0.031	0.03	0.6	0.056
	A064960	SNT모티브	자유소비재	50.0	320.6	0.027	0.03	1.5	0.019
	A003030	세아제강지주	소재	33.0	264.9	0.023	0.02	1.3	0.018
	A161000	애경케미칼	소재	37.0	223.6	0.019	0.02	5.0	0.004

자료: 한국거래소, Wisefn, 현대차증권

<표4> KRX 300 정기변경(제외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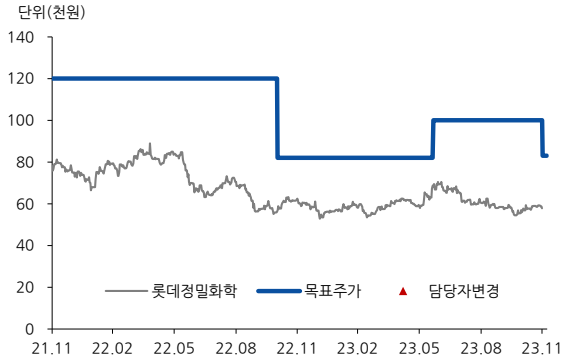
구분	코드	종목명	업종(GICS)	유동비율	유동시가총액	KRX 300 자금유입효과(ETF)			
						예상비중	자금유출입(A)	거래대금(B)	A/B
				(Wisefn)	(Wisefn)		ETF 0.11 조원	20 일 평균	
				(%)	(십억원)	(%)	(십억원)	(십억원)	(일)
제외종목	A215600	신라젠	헬스케어	82.0	558.4	0.048	-0.05	20.9	0.002
	A004800	효성	산업재	39.0	555.5	0.048	-0.05	1.8	0.028
	A020560	아시아나항공	산업재	70.0	553.7	0.047	-0.05	4.6	0.011
	A294870	HDC현대산업개발	산업재	55.0	545.6	0.047	-0.05	6.8	0.007
	A079160	CJ CGV	커뮤니케이션	61.0	419.7	0.036	-0.04	4.5	0.008
	A053800	안랩	정보기술	59.0	410.0	0.035	-0.04	4.0	0.009
	A007390	네이처셀	헬스케어	81.0	409.0	0.035	-0.04	3.6	0.010
	A001680	대상	필수소비재	57.0	391.0	0.033	-0.04	3.7	0.010
	A192080	더블유게임즈	커뮤니케이션	47.0	389.0	0.033	-0.04	2.6	0.014
	A460860	동국제강	소재	70.0	377.1	0.032	-0.03	2.6	0.013
	A181710	NHN	정보기술	44.0	353.6	0.030	-0.03	1.1	0.029
	A001800	오리온홀딩스	필수소비재	33.0	328.7	0.028	-0.03	0.9	0.034
	A215000	골프존	자유소비재	58.0	326.8	0.028	-0.03	2.0	0.015
	A032500	케이엠더블유	정보기술	64.0	305.6	0.026	-0.03	2.0	0.014
	A003850	보령	헬스케어	43.0	286.8	0.025	-0.03	2.9	0.009
	A280360	롯데웰푸드	필수소비재	24.0	284.4	0.024	-0.03	2.8	0.009
	A249420	일동제약	헬스케어	61.0	282.9	0.024	-0.03	1.9	0.013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날	자유소비재	46.0	274.1	0.023	-0.02	1.1	0.022
	A299900	위지윅스튜디오	커뮤니케이션	52.0	271.3	0.023	-0.02	7.2	0.003
	A144510	지씨셀	헬스케어	53.0	263.4	0.023	-0.02	1.5	0.016
	A020000	한섬	자유소비재	55.0	259.4	0.022	-0.02	1.2	0.019
	A272450	진에어	산업재	40.0	250.6	0.021	-0.02	1.3	0.017
	A200130	콜마비앤에이치	헬스케어	46.0	213.4	0.018	-0.02	0.7	0.027
	A005950	이수화학	소재	70.0	202.2	0.017	-0.02	2.8	0.007
	A004690	삼천리	유틸리티	46.0	179.3	0.015	-0.02	1.1	0.014
	A032190	다우데이타	금융/부동산	37.0	172.9	0.015	-0.02	1.2	0.013
	A000670	영풍	정보기술	18.0	168.8	0.014	-0.02	0.5	0.033
	A460850	동국씨엠	소재	70.0	147.6	0.013	-0.01	0.5	0.025
	A004360	세방	산업재	49.0	110.8	0.009	-0.01	0.9	0.011
	A001230	동국홀딩스	소재	35.0	100.1	0.009	-0.01	0.4	0.021
	A017390	서울가스	유틸리티	26.0	78.5	0.007	-0.01	0.6	0.012
	A003100	선광	산업재	39.0	45.1	0.004	0.00	0.4	0.010
	A016710	대성홀딩스	유틸리티	28.0	44.6	0.004	0.00	0.4	0.010

자료: 한국거래소, Wisefn, 현대차증권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1.10.29	BUY	120,000	-34.59	-23.83
2022.04.29	AFTER 6M	120,000	-42.15	-29.25
2022.11.01	BUY	82,000	-28.80	-22.93
2023.05.01	AFTER 6M	82,000	-24.77	-16.22
2023.06.21	BUY	100,000	-38.97	-29.60
2023.12.01	BUY	83,000		

▶ 최근 2년간 롯데정밀화학 주가 및 목표주가



▶ Compliance Note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업종 투자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 ~ +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2.10.01~2023.09.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47건	89.1%
보유	18건	10.9%
매도	0건	0%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